

● 演 | 劇

; 취미로 연극하기
: 극장 나들이고명진
예술의전당 월간지 에디터

이번에는 어떠한 이야기로 독자들의 발걸음을 연극 공연장으로 향하게 할지 고민하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연극에 대한 글을 이어가고 있는지 4개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연극을 접하게 되었을까. 직접 공연장에 찾은 사람은 적더라도 연극에 대한, 공연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는 독자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난달 글의 첫머리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덮고 공연장에서 직접 연극을 마주하길 바란다. 아직 머뭇거리는 독자가 있다면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 연극과 뮤지컬 시즌의 성수기 봄! 나들이 삼아 공연장에 찾아가 보자.

연극을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가 떠오르는가? 개인적으로는 대학로다. 연극에 대한 개념이 없던 고등학생 때 견학으로 마당극 관람을 위해 방문한 곳이 대학로였다는 각인 효과가 컸다. 제대로 알고 보게 된 이곳은 연극인의 공간, 젊은이의 거리다. 종로구 혜화동 거리. 어떠한 이유로 '대학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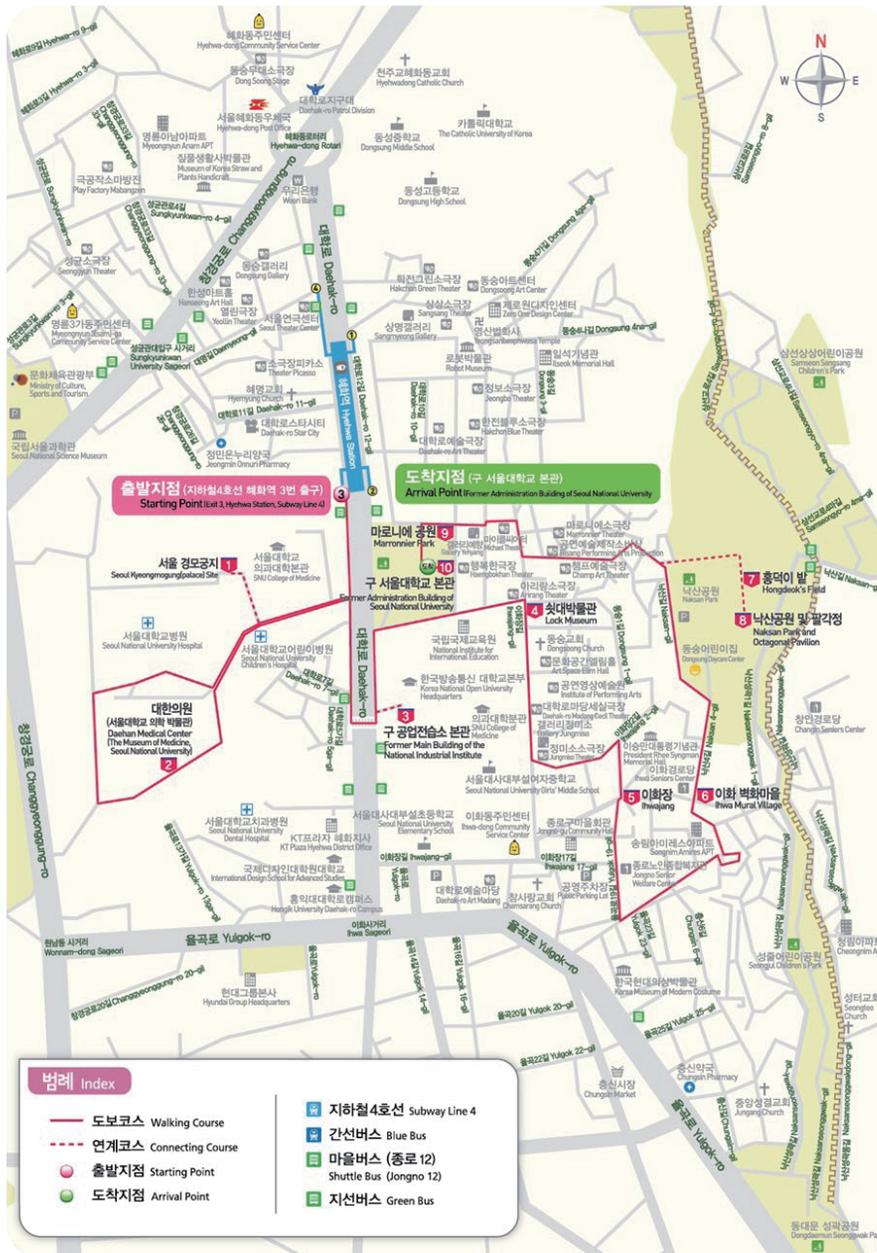


마로니에 공원

이곳은 글쓴이에게는 낯선 시대, 1985년에 이 일대를 문화예술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 도로가 명명되었다 한다. 지금은 신림동으로 이전한 서울대학교의 문리, 법과대학교가 위치했던 이곳은 자연스럽게 젊은이들과 대학생의 거리였다. 그러다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옮겨지며 그 자리에 (이름만 들어도 웬지 설레는) 마로니에 공원이 자리 잡았다. 젊은이와 심이 있는 넓은 공원. 이 조건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요즘 노래 좀 한다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인 '홍대 놀이터'나 홍대 일대의 공터에서 버스킹(거리공연)하는 모습만 떠올려 보아도 쉽게 짐작이 된다. 이어 연극,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들어섰고 각종 야외음

악회나 시낭송회, 연극공연 등의 문화 행사들이 거의 매일매일! 열리는 곳이 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 마당극 관람의 추억이 생기기 전, 어렸을 적 기억에는 다른 대학로의 모습이 있다. '축제의 거리'로서의 모습이다. 주말에 가족 나들이로 갔던 그곳은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는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마임을 하는 사람들, 풍선을 나눠주는 피에로를 보려고 주위를 둘러싼 관객들로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그때도 대학로 곳곳의 공연장에서는 열의 넘치는 젊은 배우들의 연극공연이 한창이었을 것이다.



혜화역(이화동) 주변 관광 코스 / 출처 : 종로구

사실 대학로의 연극 열풍은 예전 같지 않다. 거리가 유명해지고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극장 운영보다 식음료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건물주가 늘어나면서 운영이 힘들어진 소극장들은 사라져버렸다. 대학로 풍경이 극장 중심, 소규모 가게 중심에서 대형 의류 매장이거나 프랜차이즈 커피숍으로 줄지어진 모습은 지역의 특색이 흐릿해지는 듯하여 안타깝다. 젊은 예술가들이 고민 끝에 만들어내는 실험적이고 패기 넘치는 연극 무대보다, 대중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 쇼나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소재에 치중한 작품들도 많다. 이러한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공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관객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그 때문에 연극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대학로는 예전과는 약간 달라졌을 뿐 여전히 문화공간이다.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하는 연극의 소개를 위한 월간지 기사를 준비하다 보면 연극인을 만나기 위해 자주 가게 되는 곳이 대학로다. 연극인들의 아지트와 연습실이며 작업실 등이 자리 잡고 있어 현재 우리 공연계를 이끌어가는 젊은 연출가와 배우들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관람할 예정이라면 맛집 검색과 함께 약간의 공연 정보도 조사하고 가길. 연극이 매우 낯선 장르라면 친숙한 매체에서 접한 내용을 연극으로 관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1984년 개관한 대학로 최초의 민간 소극장 센터파랑새극장



1985년 개관한 홍대 산울림 소극장

소극장의 역사로 보면 홍대의 산울림 소극장과 포스트극장을 빼놓을 수 없다. 산울림 극장은 소극장이 자체 전용극장을 소유한 최초의 운영 방식으로 1985년 개관했다. 현재까지도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을 소재로 한 연극과 창작극을 꾸준히 올리는 홍대의 상징적인 공간이다(산울림 밴드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 1992년에 개관한 산울림 소극장 길 건너의 포스트극장은 무용전문극장으로 무용 관련 교육, 공연, 출판, 연구 등을 주관하는 창무예술원의 산하기구다. 현대무용과 우리 전통춤과 세계의 여러 무용을 주로 소개하지만 음악과 연극, 마임과 같은 공연도 올린다. 홍대 일대에 열리는 종합 예술 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의 공연장 중 하나로 사용되기도 한다.

소극장의 아담하고 소박한 분위기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중극장 이상의 규모로 극장은 서울의 경우 명동 예술극장이나 두산아트센터, 남산예술센터, 동숭아트홀 그리고 예술의전당 정도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 꼭 어떤 작품을 보러 가기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극장이 있는 곳은 문화와 여가가 있는 곳. 봄기운이 살

랑살랑 바람을 타고 오면 나들이 삼아 이곳에 가보자. 거리의 불거리들을 지나쳐 극장 앞에 다다랐을 때 극장 앞에 걸린 포스터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정도로도 좋다. 누가 나오는지, 아는 배우가 있는지, 들어본 제목인지. 관심이 가고 궁금해진다면 망설임을 버리고 극장에 들어가 보자. 공연 시작을 기다리며 객석에 앉았을 때의 긴장감과 기대감도 봄바람만큼의 설렘을 준다. 



대학로에 자리한 디자인과 뮤지컬 교육을 위한 홍익대학교 대학원

「4월의 연극소개」

45년의 명무대, 13인 명배우 공 출연

이런 기회야말로 놓칠 수 없는 그 소중한 시간

45년의 명무대, 13인 명배우 총 출연



살아있는 전설이 산울림으로 돌아온다!
2015년 '고도를 기다리며'

임영웅, 정동환, 정재진, 이호성, 박용수, 송영창, 안석환, 이영석, 한명규, 박상중, 김명국, 정나진, 박윤석, 김형복

티켓가격	5시 4천원, 4시 3천원
공연시간	평일 7시 30분 / 주말, 공휴일 5시 (필요할 경우 없음)
할인정보	조기예매(-30일 전) 30% / 산울림 제작공연 티켓소지자 20% / 대학생 30% / 장애인 50%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공연 40% / 청소년 50%

단체 및 공연문의 02-334-5915, 티켓예매 02-334-5915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고도는 어디에 있는가?

<고도를 기다리며>

산울림 소극장 개관 30주년이자 <고도를 기다리며> 초연 45주년, 임영웅 연출 60주년 등 각별한 해를 맞아 그동안 <고도를 기다리며> 무대에 올랐던 명배우가 총출동한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국내에서는 산울림 소극장에서 1969년에 초연됐다. 앙상한 나무 한그루가 서있는 시골길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부질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끝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대표적인 부조리극이다. 익숙한 배우의 모습과 그 대사에 집중하여 관람하다보면 책으로 접했을 때의 난감함은 어느새 사라져있을 것이다.

2015.3.12.(목)~5.17(일) 산울림 소극장 문의: 02-334-5915, 원작: 사무엘 베케트
연출: 임영웅 출연: 임영웅, 정동환, 정재진, 이호성, 박용수, 송영창, 안석환, 이영석, 한명규, 박상중, 김명국, 정나진, 박윤석, 김형복